http://dx.doi.org/10.14353/sjk.2015.23.1.03

한국어 교재에 표현된 사회적 차별 요소※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박은하
(대구대학교)

Abstract

Park, Eun-Ha. 2015. "Social Discrimination Factors in Korean Coursebooks: Focused on Korean Coursebook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mmigrant Workers, and North Korean Refuge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1). 55~83.**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social discrimination factors occurring in Korean coursebooks that disfavor immigrant workers,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as minorities in Korea. Therefore we examine what kind of social discrimination factors high placed and how these are presented in both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s. With regard to verbal forms, we examine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sentences and conversations including vocabularies commonly used in Korean coursebooks. The result prove that of all other forms of social discrimination found in Korean coursebooks, instances of gender role stereotypes occur most frequently. The second most frequently verbal discriminatory expression found referred to gender personality and behavior, while the third most frequently used discriminatory expression referred to physical appearance and body image. Also revealed in the study was a high recurrence of referencing gender role stereotypes in Korean coursebook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s found through comparing two particular coursebooks. Concerning nonverbal forms, we examine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main characters and illustrations. In three types of Korean coursebooks, we observe a high recurrence of gender-biases when discussing job positions. For examples, one coursebook referred to restaurant work as suited for women, while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115).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2014년도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2014.11.01)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www.kci.go.kr

describing the position of doctor as male job. Korean coursebooks for immigrants further reveal discrimination in their descriptions of socioeconomic status as determining so-called higher citizenship status. In illustrations, gender-biases of job and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presented more frequently in three kinds of Korean coursebooks than in the other kinds.

Keywords: Korean coursebook, social discrimination factors, expression of verbal discrimination, expression of nonverbal discrimination

1. 머리말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어 교재는 기관별로 자체 개발한 일반 목적을 위한 통합 교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습 목적과 학습자 대상을 고려한 여러 유형의 한국어 교재도 개발되고 있다. 교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가 과연 사회적 요소의 다양성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한국 사회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요구 및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제작되고 출판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 시대, 다문화 사회에서 이런 관점으로 한국어 교재를 검토해 봐야 한다.[1)]

한국어 교재 중에서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것은 유학생 학습자들은 이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로 인한 연구 결과로 이어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을 봤을 때[2)] 그 비율에서 유학생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및 여

1) 박선옥(2013)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주의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로, 인종, 민족, 국적, 문화, 성별, 연령,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 권리를 가지며 다양한 집단은 서로의 문화와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2) 2014년 4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60만 명 이상이다. 체류 자격별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83,372명, 결혼이민자가 142,020명, 외국인 근로자가 522,180명에 이른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4년 4월호 자료).

www.kci.go.kr

성결혼이민자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북한을 떠나 여기에 터전을 잡고자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이질감을 느끼며 외국인과 같은 이방인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도 한국 사람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할 한국어 학습자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이지만[3] 한국에 터전을 잡고 살아 갈 목적을 가진 한국의 구성원이면서 한국어 학습자인 북한이탈주민들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판되어 사용하고 있는 혹은 사용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재에 사회적 차별 요소가 드러나지 않고 다문화 관점으로 구성되고 제작되었는지를 언어적 측면과 등장인물 및 일러스트레이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향후 차별 없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데 혹은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론적 자료 근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는 교재 분석을 통한 사회적 차별 요소를 사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이미 시중에 수많은 한국어 교재가 나와 있고 교재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재의 화제 및 내용에서 다문화를 반영하는 부분은 미약한 편이다. 다문화를 이루는 요소이자 사회적 차별 요소인 인종, 민족, 성별, 언어, 계층, 장애, 종교 등에 편향되지 않게 고루 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김정은 외(2013), 김현주(2011), 박선옥(2013), 박덕재(2009), 조남민(2011), 장은아 외(2006)가 있으며 언어 교육에서는 남계령(2011), 류순자(2006), 박남지(2007), 송승희(2012), 진승희(2007), 정희진(2008) 등이 있다. 언어 교육 외에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경석(2011), 박은하(2009가), 박은하(2009나), 이정복(2014), 이정복(2007가), 이정

3) 소수자의 개념과 유형은 김하수·조태린(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www.kci.go.kr

복(2007나), 조태린(2006), Sadker(2003) 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언어 교육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몇 편에 불과하였다. 김정은 외(2013)과 장은아 외(2006)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언어권별 및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분석이라 사회적 차별 요소와 한국어 교재 측면에서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연구이다. 박덕재(2009)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언어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로, 사회적 차별 요소 중 성별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인식이라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것이 아니지만 성별어에 관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연구로는 박선옥(2013), 김현주(2011), 조남민(2011)이 있는데, 박선옥(2013)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김현주(2011)는 인권을 주제로, 조남민(2011)은 성별언어와 관련해서 다루어 사회적 차별 요소를 전반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분석한 교재는 주로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재이다. 한국어 교재에 어떤 사회적 차별 요소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최근에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사회적 차별 요소를 선별하여 이를 조사·분석한다.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다문화 및 차별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교재를 선정하였는데 교재 목록은 다음과 같다.[4)]

〈표 1〉 분석 대상의 교재

교재명	기획	출판사	출판연도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1~2	국립국어원	한글파크	2010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2	국립국어원	한글파크	2012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1~2	국립국어원	하우	2013

4) 이하에서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는 북한이탈주민 교재라고 일컫는다.

www.kci.go.kr

선정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 및 다문화 요소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거나 분석한 사회적 차별 및 다문화 요소들을 정리한다. 다음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차별 및 다문화 요소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선행 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차별 요소들

	사회적 차별 요소
이정복(2014)	성, 인종, 장애, 지역, 직업, 종교, 기타
김경석(2011)	성차별과 관련한 주요 등장인물, 대화의 개시자, 각종 운동에 참여도, 직업의 다양성, 언어능력 묘사, 남성 우선주의 등
조남민(2011)	성별에 대한 호칭어, 직업, 행위 묘사, 성별 표현, 삽화 등
박은하(2009나)	직업과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묘사, 여성의 외모를 강조해서 묘사, 남녀의 인성과 행동 특징을 차별적으로 묘사, 여성을 비하하여 부정적으로 묘사, 남녀 주인공을 통한 차별적 주제
조태린(2006)	양성 불평등 및 성 정체성 관련 표현, 신체적 특성 관련 표현, 인종이나 국적 및 지역 관련 표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관련 표현, 정보의 객관성 관련 표현
Sadker(2003)	비가시화, 고정관념화, 불균형과 선별성, 비현실성, 분리와 소외, 언어적 차별, 겉포장적 차별
박선옥(2013)	등장인물의 국적(인종), 성별, 나이, 직업
정가원(2008)	등장인물의 인종, 성별, 나이, 계급
진승희(2007)	인종,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 장애, 직업

박선옥(2013), 정가원(2008), 진승희(2007)은 등장인물과 관련한 연구이고 나머지는 언어적 표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차별 요소들 중심으로 선정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계분석과 함께 사례별로 제시하고 알아본다.

3. 언어적 차별 요소

3.1. 차별 어휘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교재는 어휘가 따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북

www.kci.go.kr

한이탈주민 교재는 과마다 학습해야 할 어휘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어가 모국어라서 이미 한국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하는 어휘가 이질적인 면이 많으며 발음도 달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 어휘 중심의 교재가 따로 편찬되어 있다.[5] 그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교재보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교재에 나타난 어휘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모음과 자음을 익히는 데 제시되거나 사용된 어휘와 기초 동사는 두 종류의 교재에서 큰 차이점은 없다. 그러나 지시대명사 '이, 그, 저'를 학습하면서 제시되는 사물 명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결혼이민자의 교재에서 제시된 사물 명사는 여느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사물 명사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연필, 의자, 시계, 가방, 볼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다. 이주노동자의 교재에서는 사물 명사로 망치, 드라이버, 못, 나사, 드릴, 펜치, 톱, 작업대, 스패너 등이 제시된다. '-입니다', '-이/가 아닙니다', '-이/가 있습니다/없습니다'의 학습 내용에도 앞에서 언급된 사물 명사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다음으로 위치와 장소를 제시하는 어휘들인데, 두 교재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제시가 다르다. 결혼이민자 교재에는 집의 구조를 보여 주면서 집 안 관련 어휘를 제시하였고, 이주노동자 교재에는 회사를 중심으로 작업장, 사무실, 기숙사의 장소와 위치를 나타내는 어휘 학습을 한다.

단위 명사를 학습할 때 제시되거나 사용되는 어휘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교재는 식품 관련 어휘를 먼저 익히고 이와 관련해서 단위 명사를 학습한다. 예를 들어, 양파 두 개, 달걀 네 개, 감자 다섯 개, 우유 여덟 잔, 두부 한 모, 수박 세 통, 배추 네 포기, 파 다섯 단 등이다. 이주노동자의 교재에서는 안전모, 망치, 못, 작업복 등을 활용해서 단위 명사를 연습하게 한다. 예를 들어, '못이 세 개 있어요', '작업복이 두 벌 있어요' 등으로 학습한다.

두 교재에서 단원구성 및 교재구성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달리 나

5) 2012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3〉으로 출간되었으며 1권은 공공생활, 2권은 문화생활, 3권은 개인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어휘 교재를 보면, 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및 외국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www.kci.go.kr

타나는 어휘를 비교해 보면, 결혼이민자 교재에서는 친족 호칭어 관련 어휘가, 이주노동자 교재에서는 월급 명세서 관련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결혼이민자 교재의 5과에서 친족 호칭어에 대한 어휘를 학습하였는데도 교재 뒷부분에 있는 문화 편에서 가족호칭을 다루면서 남편의 가족들의 호칭어를 다시 한 번 제시하고 학습한다.

지금까지는 두 종류의 교재 각 1권에 나타나는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권은 한글을 익히고 기초 한국어에 대한 내용이라 어휘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나 2권은 각 교재의 주제가 달라지고 이와 관련해서 제시되는 어휘도 달라진다. 두 교재의 2권에 제시된 각 과의 주제와 어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교재에 제시된 주제와 어휘

결혼이민자 교재(2권)					
과	주제	어휘	과	주제	어휘
1	고향소개	풍경, 도시	11	살림	감정, 부정표현
2	길 찾기	방향, 교통	12	조리법	양념, 조리법
3	요리 능력	집안일, 김치	13	머리모양	머리모양
4	예매하기	항공권, 예매	14	증상	몸, 증상
5	여행 계획	관광지, 여행	15	옷 칭찬	의복, 착용
6	은행 업무	은행 업무	16	수선 요구	의복, 수선
7	선물사기	국경일, 패션잡화	17	생활지혜	주방기구, 그릇
8	물건 교환	구매, 치수	18	명절	명절
9	가전제품	가전제품	19	부탁하기	문구류
10	수리 센터	전자제품 작동	20	여행 경험	식물, 동물
이주노동자 교재(2권)					
과	주제	어휘	과	주제	어휘
1	면접	면접	10	우체국	우편 관련
2	소개	직장 관련	11	이주노동자센터	상담 관련
3	직업 설명	작업 지시	12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 관련
4	집	주거	13	회식	회식
5	이사	이사	14	회사 체육대회	단합대회
6	룸메이트와 의견 조율	생활	15	높임말, 반말	높임말

www.kci.go.kr

7	직장 실수	사과표현	16	여행 정보	인터넷관련
8	야근	업무 관련	17	여행 제안	교통 관련
9	복지	복지 관련	18	여행 경험	여행 관련

결혼이민자의 교재에 나타난 어휘의 두드러진 특징은 요리를 비롯한 집안 일, 패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 다수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교재에서의 어휘는 직장 구하기, 직장 생활하기, 기관에서 상담 및 업무 말하기, 직장 문화 알기, 즉 직장과 관련된 어휘이다. 차이점이 주로 나타나는 어휘를 중심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결혼이민자의 교재에서는 김치종류, 양념, 조리법 등과 같이 요리와 관련된 어휘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주제 및 본문 대화 내용이 한국 요리와 음식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교재에서는 일과 관련된 어휘가 대다수이며 직장에서의 업무 및 그와 관련한 생활, 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는 주제는 유사하나 그 제시 어휘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명절' 주제를 보면, 결혼이민자 교재에서 명절에 대한 내용은 명절 어휘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명절 때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음식을 먹고 준비해야 하는지 등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이주노동자 교재에서 명절은 1권에서 휴일로 소개하고 명절 이름과 날짜를 제시할 뿐 다른 언급은 없다.

다음으로 '이사' 주제를 비교하는데, 두 교재에서 제시된 이사 관련 어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이사' 주제에 제시된 어휘 비교

교재명	어휘
결혼이민자[6]	이사 준비하기, 집을 보다, 장판을 깔다, 도배를 하다. 집수리를 하다. 짐을 싸다, 짐을 옮기다, 짐을 정리하다, 짐을 풀다, 이사를 하다 등
이주노동자	계약금, 계약만기, 수수료, 중도금, 근저당,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위임장, 계약기간, 잔금, 중도 해약, 가압류, 등기부 등본, 소유주, 인감 등

www.kci.go.kr

결혼이민자의 교재에서는 '이사' 관련 어휘를 제시하고 나서 이사에 대한 여타 설명이나 관련 내용은 없다. 이사하는 날 남편이 없어서 걱정하는 아내의 말과 포장 이사를 하면 별로 할 일이 없다는 남편의 말로 대화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사는 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반면에 이주노동자 교재에서는 이사에 대한 본문 내용과 함께 표에 제시한 어휘처럼 구체적인 어휘들이 학습할 어휘로 나와 있다. 본문 내용을 확장하여 이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하기 및 쓰기 연습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결혼이민자 교재의 3단계, 이주노동자 교재의 2단계에 제시된 이사 관련 어휘를 비교해 보면 어휘 수와 의미 수준에서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 교재의 3단계에 나오는 이사 관련 어휘는 이주노동자의 교재 2단계에 제시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의미상 별로 어렵지 않고 제시된 어휘 수도 훨씬 적다. 이주노동자 교재의 2급 수준에서는 표에서 제시한 어휘를 파악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학습자 요구 분석에 의해 이사 관련 어휘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교재에 표현된 어휘를 중심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한 결과, 두 교재가 사회적 차별 요소 중 성별 특히 성 역할을 규정하거나 고정 관념화된 이미지를 부여하는 주제 및 어휘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이주노동자 교재는 교재 자체의 목적이 노동자를 위한 즉, 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결혼이민자는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서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으로 남편의 나라에 와서 사는 순간부터 결혼이민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은 무시한 채 가사를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내용을 주로 다룬다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실정에 맞지

6) 결혼이민자 교재에서 '이사' 주제는 3권의 2과에 나오기 때문에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 교재와 비교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www.kci.go.kr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한국 여성이 결혼한 즉시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사회활동은 배제하고 집안일에만 몰두하도록 표현한 언어 교재가 있다면 과연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주노동자 교재에서 기술직이나 단순직을 하는 노동자에 국한해서 제작하였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7]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계층이나 지위를 봤을 때 여러 직업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단지 단순 기술직 노동자에 한해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여자인 결혼이민자는 집이나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역할로 규정되고 있으며 남자인 이주노동자는 단순 기술직 노동자로서만 제시되어 다른 다양한 직업군이나 역할을 보여주지 않는다.

결혼이민자의 교재가 여성의 역할을 너무나도 집안일에 국한되게 나타내다 보니, 주제와 어휘가 집안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주부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사회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8] 그러면 그 현실을 반영한 면접보기, 직장에서 적응하기 등과 같은 내용이 일부 있어야 할 것이다.[9] 또는 맞벌이 부부로서의 집안일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오로지 가사에만 몰두하는 사람으로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교재 모두 불균형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재가 편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3.2. 차별 표현

어휘에서 나타난 사회적 차별 요소는 성별에 따른 역할 규정 및 고정관념화의 유형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차별 어휘에서는 어휘라는 좁은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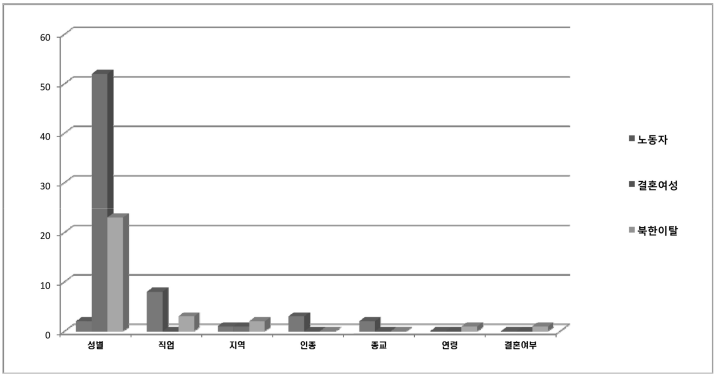
7) 교재 머리말에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들을 한국의 큰 가족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교재의 학습자 대상이 노동자라고 해서 기술직이나 단순직을 하는 사람만을 일컫는 것은 아닐 것이다.

8) 2012년 결혼이민자의 58.5%가 취업 중이고 여성 고용률은 지난 3년간 16.1%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박선옥 2013: 412).

9) 결혼이민자 교재 시리즈 중 4~6권에는 전체 20과 중 두 과정도 직업과 관련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여자가 직접 직장생활을 경험하는 내용은 아니다.

www.kci.go.kr

한정된 영역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차별 표현은 세 교재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고 문장 중심으로 표현된 예시문을 포함하여 대화문에 나타난 표현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차별 표현에서는 어떤 유형이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교재에 나타난 차별 표현 분포

이주노동자의 교재에서는 직업(일)과 관련한 요소가 가장 빈번하였고, 결혼이민자 교재와 북한이탈주민의 교재에서는 성별 요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두 교재의 차이라면, 결혼이민자 교재에서는 단 하나의 지역 차별을 제외하고 모두가 성별 요소가 나타난 것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교재에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지역, 인종, 종교, 결혼 여부와 같은 여러 사회적 차별 요소가 나온 것이다.

조사 결과, 주로 나타나는 사회적 차별 및 다문화 요소는 바로 성별이다. 성별 요소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성 역할의 규정이고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인성과 행동을 차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남녀의 역할과 인성, 행동에 대해서 고정관념화 이미지를 심어 준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성별 요소 중 성역할 규정을 먼저 보는데 이와 관련된 표현 사례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가) 성별 요소 중 성역할 규정

- 저는 부엌에서 요리해요. 남편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봐요.
- 요리를 배웁니다. 시장에 갑니다. 집에 와서 요리합니다.
- 집에 가서 저녁을 해야 하지만 아직 친구들하고 있습니다.
- 오후에 같이 시장에 갈까요?
- 가: 어디에 가세요? 나: 시장에 두부를 사러 가요.
- 찌개도 잘 끓입니다. 옷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청소를 해요.
- 흐엉: 언니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잘 못해서 남편에게 미안해요.
- 남편: 여보, 지금 뭐 해요? 수잔: 청소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어멈아, 지금 뭐 하니? 수잔: 설거지하고 있어요.
- 수잔: 여보, 유치원에 은수를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남편: 오늘은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 집안일이 많아서 오늘 친구를 못 만나요.
- 시어머니: 어멈아, 빨래하고 나서 뭐 할 거니?
  수잔: 빨래 하고나서 시장에 갈 거예요.
- 남편: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
  수잔: 여보,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릴게요.
- 수잔: 어머님, 아범이 회사에서 아직 안 왔어요.
  시어머니: 아직 안 온 걸 보니까 일이 많은 것 같아. 〈결혼이민자〉
- 여1: 김장을 해야겠는데 배춧값이 비싸서 큰일이에요.
  여2: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제법 싸다고 들었어요.
- 남: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운전은 왜 해가지고.
- 김순애: 죄송해요. 그날 시아버님 제사가 있어서요.
  이정자: 제사 준비하려면 바쁘겠다.
- 여: 오늘은 웬일로 일찍 퇴근을 했네요. 제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 남편: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아내: 네, 잘 다녀와요. 〈북한이탈주민〉

www.kci.go.kr

결혼이민자 교재에서는 성역할 규정과 관련한 표현이 대다수로 나타난다. 사례를 보면, 교재에 나오는 결혼이민자는 주로 요리를 한다. 요리를 하기 위해 시장을 가야 하므로 장소 규정은 항상 시장과 결부되어 있다. 요리를 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한다. 급기야 집안일이 많아서 친구도 만날 수 없다. 외부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에 대한 대화문 내지 예시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예시문이나 연습문을 보면, 결혼이민자는 집안일을 하거나 시장을 가야 하는 내용이 대다수인 반면에, 남편은 일을 하며 일을 하는 장소는 회사이다. 사례를 보면 남편의 피로를 결혼이민자가 풀어주어야 하며 회사일이 많으면 남편은 집안일을 안 도와도 되는 고정관념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교재에서는 역할이 일과 관련된 것이므로 직업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성역할 규정에 대한 표현은 따로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노동자를 이미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등장인물에서 다시 다룰 것인데 이는 '직업에 따른 성적 편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는 여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남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라는 직업일 경우는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주로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다.[10]

다음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한 성별 요소 중 성별에 따른 인성과 행동의 표현들이다.

(나) 성별에 따른 인성과 행동

- 제 아내는 예쁘고 착합니다. 저는 용접 일을 하고 뚜언 씨는 목재 일을 합니다. 〈이주노동자〉
- 남편은 뉴스를 좋아하는데 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 진수(아들)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은수(딸)는 운동을 싫어한다.
- 수잔: 진수는 안 울었어? 진수: 당연하지요. 저는 씩씩하니까요.

10) 이 현상은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완전히 배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Sadker(2003)에서 말한 '비가시화' 요소로 볼 수 있다.

www.kci.go.kr

• 흐엉 씨 남편은 흐엉 씨에게 순두부찌개를 사 주었습니다.
• 수잔: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으로 할까요?
  시어머니: 아범이 미역국을 좋아하지? 수잔: 네, 미역국으로 할게요.
• 남편이 선물로 사 줬어요. / 우리 남편이 사 준 목걸이야, 어때?
  남편이 생일선물로 사 준 반지예요.
• (수리에 대한 한국말을 잘 몰라서) 남편이 맡겨 놓았어요. 〈결혼이민자〉
• 여직원: 영철 씨는 어디서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아 와요?
• 정윤혁: 초희 씨는 이름만큼이나 목소리도 참 예쁘시네요.
• 김도희: 경상도 출신 아닌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 영희: 우리 정치 이야기는 그만해요. 이러다 싸우겠어요.
  철호: 누가 당선될지 내기할래요? 영희: 아이 됐어요.
• 이부장(남): 김대리 오늘 발표 아주 훌륭했네. 김대리(남): 아닙니다.
• 이 대리(여): 신제품 홍보 프로젝트 준비가 잘 안 돼서요.
  박대리(남): 미안해요. 신입사원 병수 씨에게 부탁해 봐요.
  여: 저는 신입사원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남: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 여1: 우리 남편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등산가기로해서 저녁 늦게나 들어올 거야.
  여2: 카페에서 수다나 떨자. 자기가 우리 동네로 와. 〈북한이탈주민〉

첫 번째 사례는 이주노동자 교재에서 '소개하기' 내용으로 아내는 착하다고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본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나타내고 있다. 고향에 있는 아내를 주부이거나 직장인으로 소개하지 않고 성격을 말함으로써 아내 즉 여성은 착해야 하는 인성을 내비치고 있다.

결혼이민자 교재의 첫 번째 사례에서 표현된 것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남편은 뉴스를, 결혼이민자는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성별을 대조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을 나타내는 데에도 대조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아들은 운동을 좋아하고 딸은 운동을 싫어한다고 표현한다. 이 문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성과 행동이 달리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www.kci.go.kr

사례문(결혼이민자 교재)에서 아들에게 슬픈 영화를 보고 울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아들이 씩씩하므로 울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아들 즉 남자는 슬픈 영화를 봐도 씩씩해서 울지 않는다는 인성을 표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교재에서 또 두드러진 표현은 남편 의존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례에서 보듯이 남편이 사 준 선물/음식에 대한 표현이고, 남편에 의해 결정되고 행동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남자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판단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교재에서 성별에 따른 인성과 행동에 대한 표현이 많은 편이었는데, 첫 번째 사례문은 여성이 남성의 유머감각을 칭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칭찬이다. 남성은 사교성을 위해 유머감각이 있어야 하고 여성은 이름이 예쁠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예쁜 것을 칭찬하면서 여성은 목소리가 예뻐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두 사례 모두 칭찬하기라는 말하기 영역인데 성별에 따른 인성이 달리 표현된다. 세 번째 사례는 동호회에서 앞서 소개한 여자에 대해서 남성들이 칭찬을 하자 청자인 다른 여성(김도희)이 말하는 문장이다. 다른 여성을 칭찬하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음을 표현한 말로 이것은 여성이 질투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 사례는 선거와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대화문의 하나인데, 남성은 정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려고 하나 여성은 의견이 부딪치는 것이 싫어서 그만할 것을 연이어 말하고 있다. 정치는 남성의 관심어로[11], 남성은 의견 충돌을 고려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불쾌한 기분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은 정치 이야기가 별로 내키지 않으며 대화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고 의견 충돌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사례는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여성은 직장 동료에게나 신입사원에

11) 남성의 관심어는 정치, 스포츠, 성, 전문 직업 등이어서 여성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내, 어휘 사용과 빈도에서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민현식 1995: 50).

www.kci.go.kr

게 일을 부탁하는 대화문이 제시되고 있고 남자 사원의 대화는 상사에게 칭찬 받는 대화문으로 표현된다. 성별에 따른 대화문의 내용이 달리 표현되고 있어서 성별에 따른 인성과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마지막 사례문은 일상생활에서 남편들은 주말에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 행동을 나타내며 여성들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떤다는 표현으로 성별에 따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은 신체 요소로 불필요한 외모를 강조하는 사례를 보자.

(다) 신체 요소 중 외모 강조

- 이만: 제 아내는 예쁘고 착합니다.
- 이만: 다른 동료들보다 키가 크니까 농구를 하려고 해요. 〈이주노동자〉
- 가: 한국어 선생님이 예뻐요? 나: 네, 한국어 선생님은 예쁘면서 착해요.
- 요즘 살이 쪘어요.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 이 옷을 입으려면 살을 좀 빼야 해요. 〈결혼이민자〉
- 은지: 오늘 입은 옷 너한테 잘 어울린다. 다연: 정말? 너야말로 오늘 정말 예쁘다.
  은지: 예쁘긴 무슨. 네가 정말 예쁘다 오늘.
- 자홍: 은지야, 너 못 본 사이에 정말 예뻐졌구나.
  은지: 고마워, 네가 더 예뻐졌어.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교재는 인성에서 나왔듯이 아내를 소개하면서 외모와 인성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 동료가 운동을 하자고 권유하는 대화에서 본인은 농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데,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잘해서 등의 말이 아닌 키가 크다는 외모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교재에서 첫 번째 사례는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대화로 선생님이 예쁘냐는 질문에 예쁘다고 대답하고 있다. 선생님에 관한 내용은 잘 가르치거나 교사와 관련한 요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외모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결혼이민자들 즉 여성들은 살이 찌면 안 되거나 살이 찌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교재에서도 외모를 강조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모두 여성

www.kci.go.kr

들의 대화로 여성들이 서로 칭찬하기 대화 전략으로 외모 중에서도 예쁘다는 표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종류의 교재를 보면 모두 여성들은 예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여성들은 예쁜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사례는 지역 요소가 표현된 것이다.

(라) 지역 요소

- 뚜언: 가족이 지방에 살거든요. 같이 살려면 지방으로 가야 해요.
  이만: 그렇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주노동자〉
- 어머님이 사투리를 사용하셔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결혼이민자〉
- 환자: 제가 지방에 좀 내려가야 돼서요. 약을 며칠 치 더 지어 주시면 안 될까요?
-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진로의 참이슬을 먹는데, 진로 회사의 마크가 두꺼비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참이슬' 대신 '두꺼비'를 가져다 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강신준: 대구에는 미인이 많다고 하더니. 초희 씨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네.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의 교재에서 가족들이 지방에 살고 있다고 동료에게 이야기하자 동료의 반응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방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은 않은 것, 즉 부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결혼이민자 교재에서도 결혼이민자가 시어머니가 사투리를 사용해서 한국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북한이탈주민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약국에서의 대화인데, 이 대화를 보면 지방에 가는 것이 너무 멀어서 불편한 혹은 지방에서는 약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지역을 제한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소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교재에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사례는 대화문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대구 즉 지역을 한정해서 미인이 많음을 표현하고 있다.

www.kci.go.kr

이 밖에도 민족(인종) 요소 중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직업 요소 중 지위/불평등 관계 관련한 표현, 종교 요소, 결혼 여부 요소, 연령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빈도는 높지 않지만 여러 요소들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Rivas-Drake, Hughes, & Way 2009)와 고정관념화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낮은 학문적 성취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Davis, Aronson, and Salinas 2006)가 있듯이, 교재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

4. 등장인물 및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차별 요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작가나 제작자의 이념이나 의도가 반영되듯 한국어 교재에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재 개발자와 삽화가 등에 의해 어떤 이념이 드러나리라 본다. 그리하여 한국어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차별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다.[12] 아울러 교재에는 삽화와 사진이 다른 구성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삽화 및 사진에서 차별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13] 언어적 차별 요소에서 다룬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은 주인공, 출현 빈도, 국적, 연령 등도 함께 볼 것이며, 삽화는 묘사되는 성별에 따른 역할, 행위와 장소, 경제적 지위, 부정적 이미지 등 위주로 조사한다.

12) 교재의 등장인물이 학습 과정과 학습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는 논의를 한 연구로는 박선옥(2013), 정가원(2008), 박남지(2007)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재의 등장인물에 따라 학습 태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등장인물에 따른 학습 태도의 변화는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13) 삽화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Komatsu, Hanae(2013) 및 문지현(2008)을, 삽화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안주호(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www.kci.go.kr

4.1. 등장인물

결혼이민자의 주요 등장인물은 여성 결혼이민자로 '수잔'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등장인물 소개에서도 주인공이라고 하였다. 수잔이 두 권의 교재에서 33회 등장하였고 흐엉이 8회, 홍매와 닛차단이 각각 7회, 수잔의 남편이 6회, 현우엄마와 진수가 3회 순으로 나왔으며 나머지는 1~2회 정도이다.

박선옥(2013)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교재의 등장인물은 학습 과정과 학습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언어교육에서 실제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교재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그 인물의 실제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등장인물의 출현 빈도와 출신국의 분포 등이 편향되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이고 등장인물의 출신 국가와 연령 등 실제성으로 출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인공인 수잔은 필리핀 사람이며 서른 살이고 흐엉은 스물여섯 살의 베트남 사람이다. 닛차난은 태국, 홍매는 중국 사람이며 각각 28세, 27세이다.[14] 출입국 외국인 통계표에서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빈도순을 보면[15] 실제성 측면에서 교재에 나오는 태국 사람인 닛차난보다 일본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게다가 주인공은 필리핀 사람인 수잔이 아닌 중국 사람인 홍매가 되어야 한다.

연령도 실제성과 맞지 않는데, 박은하(2011)을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인 남편과의 나이 차는 11~20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이 6~10살임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나이는 주로 20대 초·중반이고 남편의 나이는 대다수가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된다. 교재에서 수잔은 서른 살이며 남편은 서른일곱 살로 소개되었는데 나이 차는 일곱 살이다. 일곱

14) 등장인물 소개에 삽화와 함께 이름을 비롯하여 국적과 연령이 적혀 있어서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 수 있다.

15)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에서 152,020명 중 여성이 129,646명(85.3%)을 차지하며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 40.7%, 베트남 26.4%, 일본 8.2%, 필리핀 7%이다. 태국은 기타(12.6%)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다(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14년 4월호 2014: 24~25).

www.kci.go.kr

살의 나이 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곱 살 아이를 둔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나이가 서른일곱 살인 한국 남자는 잘 없을 것이다. 흐엉 가족에서 흐엉은 스물여섯 살이며 남편은 서른 살로 흐엉과 남편의 나이 차는 네 살이다. 실제 이 나이 대와 나이 차를 찾아보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짐작된다.

이주노동자 교재 1권과 2권 모두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남성 이주노동자로, 이만과 뚜언이다. 이만은 총 31회, 뚜언은 20회 등장하며 한국인으로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2명이 있다. 1권에서는 '김민수'라는 한국인이 10회 나오고, 2권에서 '이상우'라는 한국인이 10회 등장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직장은 옮기는 상황 설정에서 그러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등장하는데 직장 옮기기 전과 후의 사장님이 다르게 등장한다.

이주노동자 교재에는 등장인물 소개가 따로 없지만 이만과 뚜언이 주인공처럼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등장하므로 교재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설정된 요소가 드러난다. 이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며 뚜언은 베트남 사람으로 나오지만 나이는 명시하지 않았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14)에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중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이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중국 사람은 주인공으로 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재에서는 앞의 두 교재와는 달리 주요 인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화 내용에 따라 대화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각기 다르다. 주인공을 제외하고 세 교재에 어떤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오는지 성별로 나누어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5〉에서 대화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별을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 결혼이민자 교재와 북한이탈주민 교재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며 이주노동자 교재에서 남성의 출현이 다소 많다. 북한이탈주민 교재와 결혼이민자 교재에 등장하는 직업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다양한 직업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점원, 직원, 일반인이 나온다.

이주노동자 교재에서 여성의 직업으로는 가게 및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은행, 우체국, 센터 직원으로 자주 나온다. 이에 비해 남성의 직업은 센터 직원과 근로자가 있으며, 지위가 높은 소장님, 의사, 사장님, 부장님으

www.kci.go.kr

〈표 5〉 교재에 나타난 등장인물

교재		등장인물(주인공 제외)
		여
결혼 이민자	1권	한국어선생님(2), 우체국직원(1), 옷가게점원(1), 수잔 시어머니(1)
	2권	행인아주머니(1), 수잔 시어머니(1), 호엉 시어머니(1), 항공사직원(1), 은행원(1), 옷가게점원(1), 미용사(1)
이주 노동자	1권	식당종업원(1), 가게1아주머니(1), 식당아주머니(1), 가게점원(1), 가게2아주머니(1), 은행원(1), 고용센터상담원(1)
	2권	우체국직원(1), 출입국센터직원(1)
북한 이탈 주민	1권	간호사(1), 고객(1), 단속반원(1), 보행자(1), 상담원1(1), 상담원2(1), 영희(1), 이계장(1), 이대리(1), 이정자(1), 우체국직원(1), 주민센터직원(1), 직원1(1), 직원2(1), 학부모(1), 행인(1)
	2권	윤초희/경리(1), 김순애(1), 나(1), 식당종업원(1), 주민(1), 손님1(1), 마트직원(1), 화장품가게점원(1), 이정자(1), 은실(2), 손님2(1), 손님3(1), 아내(1), 손님4(1), 손님5(1), 김도희(1), 할머니(1), 어머니(1), 큰어머니(1), 형수(1), 여동생(1)

교재		등장인물(주인공 제외)	남녀 수
		남	
결혼 이민자	1권	야채가게 아저씨(1)	여(12) 남(4)
	2권	전자제품가게 점원(1), 의사(1), 세탁소주인(1)	
이주 노동자	1권	고용센터상담원(1), 근로자(1), 소장님(1), 의사(1)	여(9) 남(12)
	2권	사장님1(5), 사장님2(1), 상담사(1), 부장님(1)	
북한 이탈 주민	1권	고객1(1), 고객2(1), 고객3(1), 공장장(1), 기자(1), 남자(1), 박대리(1), 보험설계사(1), 선생님(1), 손님1(1), 손님2(1), 운전자1(1), 운전자2(1), 주민(1), 회사직원(1), 직원(1), 철호(1)	여(38) 남(32)
	2권	동생(1), 형철(1), 복지사(1), 옷가게점원(1), 피자가게종업원(1), 남편(1), 미용사(1), 정윤혁(1), 형님(1), 친구(1), 손님1(1), 관리사무소 아저씨(1), 생선가게상인(1), 손님2(1), 강신준(1)	

로도 등장한다.

이는 사회적 계층이나 경제적 지위에서의 차별 요소를 보이는 것인데 여성은 사회적 계층이나 경제적 지위에서 남성보다는 낮은 체계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직업에 따른 성별 편향성을 띤다고도 할 수 있는데[16] 이것은 여성들이 세 교재에서 공공기관의 직원이거나 가게 점원으

16) 널리 사용되는 ESL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제외, 남성 우선시, 직업의 편중화'가 주요

www.kci.go.kr

로 대다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직업은 직원 내지 점원으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2.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떤 의미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삽화, 사진, 도안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17] 교재에서는 어휘의 의미 또는 대화문과 한국 문화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나 사진을 많이 사용한다.[18] 교재들을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 교재가 다른 교재에 비해 삽화 수가 많았으며[19] 차별적 요소가 많이 드러났다. 내용(제시문)과 관계없이 굳이 여성/남성으로 표현한 삽화와 한 삽화, 여러 삽화에서 남성과 여성을 대비시켜 나오는 삽화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삽화에서 직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봤을 때, 세 교재에 공통적으로 나오며 빈번하게 등장하는 직업이 의사/간호사, 공공기관의 직원, 식당 및 슈퍼 점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간호사, 은행원, 선생님, 식당 및 가게 점원은 세 교재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데, 간호사와 은행원은 모두 여자로 표현되며 선생님과 식당 및 가게 점원은 남녀로 그려지나 점원의 경우 여성이 많다.[20]

세 교재 모두 경찰관과 우체국 직원이 등장하는데 경찰관은 모두 남자로, 우체국 직원은 모두 여자로 나온다. 의사도 세 교재 모두 남자로 표현되어

문제점이라 지적하였다(Porreca 1984: 718~723).

1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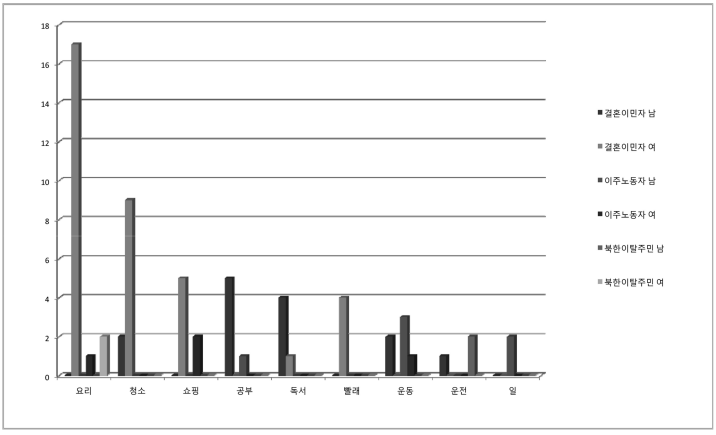
18) 북한이탈주민 교재에서 삽화는 단원별로 본문에 해당하는 삽화만 있고 다른 내용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삽화보다 사진이 많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교재는 사진보다는 삽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이 별로 없다.

19) 결혼이민자 교재 1권과 2권 모두에서 삽화는 한 페이지에 여러 삽화(1~10개)가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교재는 단원별로 본문에 해당하는 작은 삽화 3~4개만 있을 뿐이다. 이주노동자 교재에서 삽화는 1권은 단원별로 새 어휘와 연습문제에 삽화가 나오므로 삽화 수가 많은 편이나 2권에서는 대화문과 듣기 제시에서만 삽화가 나오기 때문에 단원별로 2~3개로 현저하게 삽화 수가 준다.

www.kci.go.kr

있는데, 이주노동자 교재에는 다른 두 교재에 비해 의사가 많이 나온다. 결혼이민자 교재에서는 3번, 북한이탈주민 교재에서는 2번 이주노동자 교재에서는 14번의 삽화가 있다. 2개의 삽화만 의사가 여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자로 표현하였다. 의사를 여자로 표현한 삽화는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나타내고 있다.

삽화 및 사진에서 차별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것은 성역할 규정인데 결혼이민자 교재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교재에 나타난 일러스트레이션의 성역할 규정

결혼이민자 교재에서 성역할 규정과 관련한 삽화는 87개, 이주노동자 교재에서는 15개, 북한이탈주민 교재에서는 4개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교재별로 다수를 차지한 것을 〈그림 2〉로 나타낸 것이다.

결혼이민자 교재의 삽화에서 '요리, 청소, 쇼핑, 빨래'는 여자가 해야 할 일로 그려져 있다. 교재의 대상이 여성인 것을 감안해서일 수도 있고 어휘나

20) 〈표 6〉 선생님과 점원의 성별 빈도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계
선생님	2번(남)	1번(여)	1번(남) 2번(여)	남(3), 여(3)
식당/가게 점원	3번(여)	7번(여)	3번(남) 3번(여)	남(3), 여(13)

www.kci.go.kr

대화문은 주제와 관련 있으므로 집안일을 하는 것을 여성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법 연습에서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삽화가 자주 반복해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 교재에서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할 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공부, 독서, 운동'은 남자의 일로 삽화가 그려져 있다. 교재에 나타난 삽화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면 요리(24), 청소(18), 쇼핑(14), 빨래(11) 등으로 삽화 개수는 더 늘어난다.

한 삽화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오면서 다른 역할로 표현하는 삽화가 있는데 이러한 삽화는 성별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교재의 대화문(하루일과) 삽화에서 '저녁 7시에 남편하고 같이 저녁을 먹어요.' 글의 삽화를 보면, 남편인 남자는 의자에 앉아 밥을 먹고 있고, 아내인 여자는 두 손으로 그릇을 들고 서 있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다. '함께 먹는다'는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삽화라고 할 수 있으며 남자는 밥 먹는 동안 여자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내용과 별개로 맞지 않는 표현이다.

다른 대화문의 삽화를 보면, 아이에게 학교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여자는 과일을 깎고 있고 남자는 과일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또 다른 대화문의 삽화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인데 삽화에서는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서 갖다 드리는 장면이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며느리는 두 손으로 과일을 드리면서 허리까지 굽혀서 공손하게 드리는 모습이다. 이 세 가지 대화문의 삽화를 보면 결혼이민자에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지나치리만큼 갖춘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

삽화에서 소극적, 부정적, 수동적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것도 있었다. 결혼이민자 교재는 8개, 이주노동자 교재는 7개, 북한이탈주민 교재는 1개의 삽화가 그러하였다. 이주노동자 교재에서의 삽화는 7개 모두 노동자를 부정적 이미지로 그린 것이고, 결혼이민자 교재는 부정적 이미지는 4개, 소극적이면서 수동적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것은 4개이며 북한이탈주민 교재의 삽화 1개는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지역에 관한 삽화로 부산을 나타낸 것이 있는데[21] 이것은 삽화에 '부산'

www.kci.go.kr

과 '해운대'의 글자를 써 놓았다. 신체 및 외모를 강조하는 삽화로는 하나가 있었다. 결혼이민자 교재의 대화문에 고향에 대한 소개를 삽화로 나타낸 것인데 해변을 그린 곳에 여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누워 있는 그림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장애와 관련한 삽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장애 관련한 차별적 표현은 없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징후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Sadker(2003)가 언급한 차별 유형 중 '비가시화'가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굳이 넣기가 곤란하다면 삽화나 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교재에서 사회적 차별 요소로는 성역할 규정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교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초 혹은 공통 한국어를 배우는 교재와 이후에 각기 목적에 맞는 한국어 교재 즉 초급은 일반 목적의 한국어처럼 생활이나 생존을 위한 한국어를 배우고 다음 단계에서 취업,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의 목적에 맞는 용도별 한국어 교재가 있다면 사회적 차별 요소가 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교재는 결혼과 노동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려는 노력에 의해 제작되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으로 여긴다.

5. 맺음말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차별에 대한 인식 및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개발되었거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재 개발에 관여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차별 요소가 드러나는 교재가 제작되었으리라 본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최근에 출간된 결혼이민

21) 지역을 나타내는 삽화는 이주노동자 교재에서만 3번 나왔다. 3번 모두 부산을 나타내는 삽화이다.

www.kci.go.kr

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들 대상의 한국어 교재에 사회적 차별 요소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나타난다면 어떤 유형의 사회적 차별 요소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며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언어적 측면과 등장인물 및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누어서 조사·분석하였다.

언어적 표현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어휘뿐만 아니라 대화문 및 예시문으로 구성된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성별 요소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성역할 규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별 요소 중 인성과 행동, 신체 요소 중 외모 강조, 지역 요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순으로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봤을 때, 결혼이민자 교재에서 성역할 규정이 심각하다고 할 만큼 표현이 많으며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등장인물 및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서는 교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는데, 먼저 등장인물의 성별 빈도는 이주노동자 교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교재에서 여성의 출현율이 높았다. 주인공을 제외하고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와 직업을 조사하였는데, 세 교재 모두에서 주로 여성의 직업으로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가게, 식당의 점원 등으로, 경찰관과 의사 등은 남성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직업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교재는 이주노동자는 단순직, 기술자로 출현하는 반면 한국 남성이 등장하는 직업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장님, 부장님, 소장님으로 등장하여 사회적 계층,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도 보여주고 있다.

교재에 나오는 삽화와 사진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 요소를 분석한 결과, 직업에 따른 성별 구분이 확연하였고, 성역할을 규정하는 삽화가 많았다. 세 부류의 교재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교재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성의 역할 규정에 대해서는 삽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사회적 차별 요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교재 및 자료에서 사회적 차별 요소가 잘 드러나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차별 요소를 줄이기 위한 지침 및 안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www.kci.go.kr

참고문헌

국립국어원(2010),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한글파크.

_____(2010),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 한글파크.

_____(2012),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1, 한글파크.

_____(2012),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2, 한글파크.

_____(2013),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말하기≫ 1, 하우.

_____(2013),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말하기≫ 2, 하우.

김경석(2011), 〈영문법 교재에 나타난 편견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9(2), 23~50, 한국사회언어학회.

김정은·김미옥(2013),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의 언어권에 따른 차별 기능 문항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8, 67~10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김하수·조태린(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1), 79~104, 한국사회언어학회.

김현주(2011), 〈인권을 주제로 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남계령(2011), 〈7차 개정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 문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문지현(2008), 〈일본어 교재에 나타난 삽화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34, 7~64,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류순자(2005), 〈고등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관련 내용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박남지(2007), 〈교과서의 등장인물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박덕재(2009),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콘텐츠에서의 성별언어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8), 423~432, 한국콘텐츠학회.

박선옥(2013),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재의 등장인물 분포 연구〉, ≪어문논집≫ 55, 395~420, 중앙어문학회.

박은하(2009가), ≪광고 속의 성차별≫, 소통.

www.kci.go.kr

_____(2009나), 〈한국 전래동화에 표현된 성차별 언어〉, ≪아시아여성연구≫ 48(1), 7~29, 아시아여성연구소.

_____(2011), 〈설문조사로 본 결혼 이주여성의 호칭어 사용 현황〉, ≪다문화콘텐츠연구≫ 10집, 7~28,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송승희(2012),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차별과 차별적 언어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안주호(2009), 〈한국어 학습자의 교재 선호 특성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82, 279~307,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정복(2007가), 〈북한 국어사전에 나타난 여성 차별어 분석: 남한 국어사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0, 147~174, 우리말글학회.

_____(2007나),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257~300, 한국어학회.

_____(2014),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장은아·양길석(2006), 〈한국어능력시험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분석〉, ≪이중언어학≫ 제32호, 291~324, 이중언어학회.

정가원(2008), 〈교과서와 ESL 교재 등장인물 분포 연구: 다문화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정희진(2008), 〈비판적 페더고지 이론으로 본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인종 차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조남민(2011), 〈한국어 교육과정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성별언어에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 7(1), 211~23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조태린(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진승희(2007), 〈7차 교육과정 영어교과서의 문화교육에 나타난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Komatsu Hanae(2013), 〈한국어 교재 삽화 분석: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초급 교재 삽화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Davis, C., Aronson, J., & Salinas, M. (2006). "Shades of threat: Racial identity as a moderator of stereotype threat".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2, 399~417.

www.kci.go.kr

Porreca, K. (1984). “Sexism in current ESL textbooks”. *TESOL Quarterly* 18(4), 705~724.
Rivas-Drake, D., Hughes, D., & Way, N. (2009). “A preliminary analysis of associations among ethnic-racial socialization, ethnic discrimination, and ethnic identity among diverse urban sixth grade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9, 558~284.
Sadker, D. & Sadker, M. (2003), *Teachers, Schools, and Society*. New York: McGraw-Hill Higher Education.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박은하
eunha0530@hanmail.net

논문 접수일: 2월 17일
논문 심사일: 3월 1일~3월 31일
게재 확정일: 4월 13일

www.kci.go.kr

www.kci.go.kr